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전북교육청-전주대
교육발전 힘 모은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음 4월 29일) 제253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도, 예산확보 막바지 총력전

지휘부, 내년도 주요사업 부처반영 전방위 행보
정치권 공조, 국회 · 세종청사 넘나들며 설득전

전북도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도 주요사업 국가예산이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중심으로 부처편성 막바지 단계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중앙부처 방문활동이 어려워져 유선 연락, 중앙부처 출향인사 활용 등 축적된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물밑 활동을 전개해 왔고, '코로나 19'가 잠잠해진 4.15 총선을 기점으로 주 2회 이상 송하진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가 서울 국회, 세종 정부청사를 넘나들며 전방위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해왔다.

지난 19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영상회의)에 참석해 2021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청취하고, 도정현안 및 2021년 국가예산 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각 예산심의관 등이 참석, 전북도에서는 최용범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소관 실국장이 참여해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주력산업 체질강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여행체험 1번지 등 내년도 국가예산 핵심 사업 등을 건의했다.

20일에는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정부대전청사를 찾아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재청, 산림청을 순차적으로 방문, 내년 국가예사업이 부처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차세대 핵심소재인 탄소섬유, 미래자동차 산업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 인력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97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문화재청에서는 전북지역 중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매장문화재 발굴 · 연구를 위해 설립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77.5억원, '장수 백화산 고분군 복원정비'를 위해 24.5억원 반영 등을 이야기 했다.

산림청 방문은 무궁화 재배 전국 1위고, 지자체 최초로 무궁화 신품종 및 흉화 등을 개발한 전북지역내 무궁화관련 연구 · 재배기술 등의 기능을 집적화하여 시너지를 높일수 있도록 '국립 나라꽃 무궁화센터에 조성'에 필요한 5억원 반영과 순창 용궐산 자연휴양림, 채계산 구름다리와 연계하여 '순창 채계산 지역특화조림 조성'을 위해 5억원 반영 등을 전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31일까지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실국장 등이 국가예산 확보 방문 활동에 총력 매진 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체온 측정하는 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한 20일 도내 어느 고교에서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도와 전북도 도 · 시 · 군 공무원노동조합 간의 2020년도 단체교섭 상견례에 송하진 도지사와 안남귀 전북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 신윤철 전공노전북본부장, 김형국 전라북도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

전북도-도 · 시 · 군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회동

전북도와 전북 도 · 시 · 군 공무원노동조합 간의 2020년도 단체교섭 상견례가 20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안남귀 전북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 신윤철 전공노전북본부장, 김형국 전라북도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북도와 도 · 시 · 군 공무원노동조합 간 이번 단체교섭은 2015년 첫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세 번째 교섭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 · 시 · 군 공무원노동조합에 "도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조 활동을 부탁한다"면서 "공무원들의 권익증진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남귀 위원장은 "도와 도민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힘을 보태면서 공무원들의 권리보호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북도는 도 · 시 · 군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도와 노동조합이 함께 상생하면서 도민을 위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열린어린이집 설명회 온라인방식 도입

전북도가 2020년도 열린어린이집 설명회를 온라인(화상) 방식을 도입해 추진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0년도 열린어린이집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속 거리두리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며, 기존처럼 단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과 강사가 연결되는 실시간 양방향 교육으로 한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지고 있던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추진을 재개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온 결과 이같이 온라인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다." 며, "이번 온라인 교육을 통해 생활속 거리두기 규정 준수는 물론 교육효과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황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21일, 2차 22일, 3차 25일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진성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aT, 지역 로컬푸드도 '하루 2번 당일배송'

친환경 박스 사용… 전기차로 전주지역 2개소 시범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그동안 매장을 방문해야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컬푸드직매장에 20일부터 근거리 배송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쿠팡과 마켓컬리 등 대부분의 e-커머스업체들이 신선식품 당일배송과 새벽배송으로 업체간 배송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현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던 로컬푸드직매장도 고객들의 쇼핑 편의성과 사업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우선 전주시 산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전주푸드직매장 종합경기장점과 송천점 두 곳이 운영되며, 전주지역 내 소비자가 전화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운행되는 배송차량을 통해 생산농가가 당일 수확한 신선한 제철농산물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로컬푸드 취지에 맞도록 포장은 모두 친환경 박스를 사용하고, 배송차량은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차로 운영된다. 또한 직매장에 직접 납품하기 어려운 지역의 영세농가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산물 순회 수집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전주푸드직매장은 1,255개 지역농가가 출하한 85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출하농가 대부분이 고령농, 여성농, 중소농으로 로컬푸드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어 이번 사업의 성과는 지역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